



지난 동계에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과 테니스로 시작된 남원에서의 전지훈련이 이어져 하계에도 육상 선수들이 몰려와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남원 전지훈련1번지 '각광'

2,300여명 선수들 방문... 지리산 고원지대에서 마라톤 훈련 중

남원시가 전지훈련지 1번지로 선수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 지난 동계에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과 테니스로 시작된 남원에서의 전지훈련이 이어져 하계에도 육상 선수들이 몰려와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전지훈련 1번지로서의 명성을 단단히 하고 있는 남원에 이미 2,300여명의 선수들이 방문하며 7월 현재 지리산 고원지대에서 중·장거리 및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 중이다.

국내 최고 육상 실업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건국대학교, 전북체육회 등 총 11개팀 100여명의 선수들이 산내와 운봉 일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페루 국가대표 2명도 금번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전지훈련에 참여한 실업팀 관계자는 '철체에 빠져 있는 한국 육상계지만, 선수들은 언제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육상 팀들이 남원을 하계 훈련지로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지훈련지로서의 남원에 대해 호평했다.

남원은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고원지대와 평야지대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추어탕으로 대표할 수 있는 향토 음식, 광한투로 널리 알려진 전통문화 등으로 전지훈련을 위한 천혜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원지대에서의 훈련은 심박수 감소, 적혈구 증가, 심폐지구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돼, 남원의 고원지대는 육상 훈련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남원시는 마라톤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3번이나 갱신한 김완기 선수를 배출하는 등 한국 마라톤 선수배출의 산실 역할을 했을 정도로 우수한 훈련 환경을 자랑했던 만큼,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환주 시장은 "무더위로 훈련하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덕분에 우리나라 육상의 앞날이 밝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육상으로 널리 알려진 남원에서의 훈련이 선수들의 기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육상 전지훈련은 8월 말까지 약 45일간 이어질 예정이고 이에 더해 하계 전북 주니어 테니스팀의 전지훈련이 예약되어 있는 등 호남 전지훈련 1번지로서의 남원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지원 신청 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을 오는 8월 26일까지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지원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65세 미만 농어촌 거주 여성농어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혹은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연간 12만

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스포츠용품,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고창군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증진과 문화,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어업인들이 보다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목표달리다



임실군, 건강홍보체험관 운영

임실군은 19일 관촌중학교 오일축제와 연계해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홍보체험관을 운영했다.

체험관은 흡연예방 홍보 및 CO 측정 등 금연상담, 가슴음주고글체험을 통한 절주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를 비롯해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서명운동, 소변으로 나의 소금 섭취량 알아보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단맛 줄이기 홍보 및 영양상담,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형식적인 체험관 운영을 벗어나 체험과 참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군 관계자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고 음주와 흡연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져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행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며, "체험관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희망하는 경로당 7개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경로당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7개소 읍·면·동지역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운영했던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로 건강관리를 수행한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농번기 종료 후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함으로 연중실시 하게 되는데 겨울철 프로그램의 운영 준비를 위해 관내 483개소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5여개의 경로당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최고의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과 즐거운 노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며 여름철에도 땀방울을 흘리는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보건소 담당자와 전문체조강사가 함께 경로당을 방문

하여 주2회, 경쾌한 음악과 함께 근력강화를 위한 체조를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즐거움을 주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과 건강 상담 후 질환 의심을 병·의원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수행한다.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과 즐거운 노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며 여름철에도 땀방울을 흘리는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군 관계자는 "계시물 기부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성매매는 불법이고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다문화센터 '多토크 토론회' 개최

다문화가정 교육현장 이해·교육기관 소통기반 조성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가 함께 하는 교육 어울림! 다문화 多토크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지역 내 한 카페에서 열린 토론회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돼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문화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취업 등

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모임이나 사회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교육현장 이해와 교육기관과의 소통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문화가정의 교육사회 참여와 소통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선식대 이상희 교수, 남부대 황상심 교수, 흥덕초 홍성의 교사의 주제발표와 가정교육 및 유아교육, 학교교육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이뤄져 다양한 현

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관계자와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교사 모두에게 토론회가 다문화가족과 그들의 교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녀를 위한 교육현장에 다문화 학부모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고창경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가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합동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 내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올바르게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게시물은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것과 성매매 피해상당수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주는 업소 내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달 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 없도록 적극 알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성매매는 불법이고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현안사업 해결·경쟁력 강화 나서

순창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성한 141억을 투자해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순창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141억원은 군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투자하기로 확정된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원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순창읍) 4천 8백만원 ▲화장 장려금 2천 5백만원 ▲마을방범CCTV 설치지원 3천만원 ▲경천년 보행로 설치 2억원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 7천 2백만원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다.

또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 부지 매입비 20억 (총 확보액 49억원)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6억 3천만원 등 순창 미래경쟁력을 키울 대형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유통포장재 지원 1억원 등 농업분야와 복지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군 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 관련 예산이 770억원(24.15%)로 가장 많고 사회 복지·보건분야 603억원(18.91%), 국

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29억원(10.32%), 문화및관광분야 202억원(6.32%)등 순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의 재정 여건은 자체 예산이 부족해 국가 예산 확보가 군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자세수입 증대와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 노력과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병행해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 217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7월 15일 의결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9일 제 6차 본회의를 열어 제2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원격검침을 활용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관한 의안을 심의 하였고, 13일부터 19일까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으며,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추진시 문제점 및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안을 제시하였다.

최인규 의장은 "제7대 고창군의회는 군민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으며, 집행부와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고창발전을 위해 거듭 날 수 있도록 책적과 질책을, 때로는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되 견제 부분은 견제하고, 시장할 부분은 시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임실군은 19일 '제2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했다.

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백혜신)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남녀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를 주제로 심민 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여성단체 회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역량을 결집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안영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의 특강, 가가금 병창,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심민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장점이 존중되어 품위 있는 평등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여성들의 역량을 모아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